

2006 금산인삼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인삼으로 만드는 건강세상' 주제

2006년 충남 금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나왔다.

최근 도에 따르면 대회장 면적을 기존 13만여㎡에서 인삼약초시장을 포함해 26만여㎡로 확대하고 주차장 면적도 6만여㎡에서 12만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제관, 국제관, 인삼 종합전시관 등의 전시부문과 주제영상, 주제공연, 상설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키로 했으며 금산군 다목적회관과 인삼약초시장 등 기존 건물을 최대한 사용해 사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제교역전과 인삼 학술포럼의 비중을 높여 산업박람회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국제학술포럼은 세계적 권위 있는 학자들

들을 초청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엑스포 준비를 위해 순수사업비 100억원과 간접사업비 204억원 등 304억원을 투입해 인삼시장 현대화사업 전시관 리모델링, 국도 37호 우회도로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 주최로 개최되는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는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일간 금산을 일원에서 '인삼으로 만드는 건강세상'이란 주제로 고려인삼의 홍보와 활로 모색 등을 위해 개최된다.

창출·적작약·하수오 3품목 한약재 수급조절대상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구랍 16일 창출·적작약·하수오 등 3개 품목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에서 제외토록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로부터 창출·적작약·하수오는 국내 생산실적이 극소량이어서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가 미미하다는 개방건의 요청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생약협회는 이들 3개품목 개방안과 관련 "창출, 적작약, 적수오(하수오)는 국내 생산량이 거의 없는 품목이긴 하나, 만약 개방될 경우 창출은 백출과, 적작약은 백작약과, 적수오는 백하수오와 유사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품목이 둔갑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로 유사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 통관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산 감기약 '세관 골치'

환각증세 유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 함유

대구 세관이 중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마약성분이 담긴 '복방감초편'과 '거통편' 등 한약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방감초편'은 중국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이지만 환각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는 반입이 불가능한 물질. 또 '거통편' 역시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세관에서 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여행객들이 '복방감초편'과 '거통편'을 상비약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갖고 들어오면서 복방감초편은 대구세관에서 울물

어서만 54차례나 적발돼 모두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증상의 설명이 어렵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조선족이나 중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상비약으로 3~10통 정도를 소지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마약관계자는 "세관적발 사례는 많지만 아직까지 시중에서 복방감초편이나 거통편 복용 혐의로 붙잡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북경과 상해, 심양 지역 등으로 매주 왕복 14편이 운항된다.

한의사들이 개발한 '인동초 담배'

한의사들이 한약재로 만든 니코틴이 없는 담배(담배 대용품)가 등장했다.

대전대 출신 한의사들이 설립한 한방벤처인 (주)바이오소프트뱅크는 최근 인동초의 꽃잎을 말려 만든 담배 대용품 '허브노니코'를 출시했다.

허브노니코는 모양과 형태가 담배와 비슷하지만 니코틴이 전혀 없고, 순수 한약재로 만들어 피울 때 입 안에서 역겨운 냄새나 가래 인후통증 대신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동초는 한방에서 폐니실린이라 불리는 약초. 진통, 이뇨, 항바이러스, 염증 제거는 물론 편도선염, 구강염, 인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재다.

박재상 대표는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했고 앞으로 여성용 슬림형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며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약재 산지동향 파악 수급조절위, 오는 13~15일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송경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산약재 산지동향파악을 위해 구기자, 황기, 산수유, 황금, 천마 산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상황버섯"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

중앙대 황완균(黃完均) 교수와 경남생약연구소 성환길(成煥吉) 박사팀은 최근 동물실험을 통한 상황버섯이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상황버섯의 단독엑기스를 투여했을 때 당뇨병 유발쥐의 혈당을 36% 낮춰 당뇨병약(톨부타미드)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특히 상황버섯과 홍삼을 함께 투여했을 때는 당뇨병을 유발한 쥐의 혈당을 56% 낮춰 상황버섯 단독투여보다 20%포인트 더 낮췄다. 혈액 중 콜레스테롤에 대한 작용은 당뇨병 유발 동물실험에서 당뇨병을 일으킨 쥐의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약 21%를 낮췄으며 상황버섯과 홍삼의 혼합물은 상황버섯 단독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동맥경화 예방·억제 실험에서는 상황버섯이 비타민C와 거의 같은 작용을 나타냈으며 상황버섯과 홍삼을 혼합한 것은 비타민C보다 10% 더 상승작용을 나타냈다. 성박사는 "이번 동물실험에서 상황버섯이 당뇨병·고혈압·동맥경화·콜레스테롤치 저하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中企 '홍화씨·당노김치' 개발

40대 부부가 김치사업을 하다 부인이 앓아오던 관절염을 홍화씨로 효과를 본 것에 착안해 '홍화씨 김치'를 개발한데 이어 '당노김치'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우진식품(대표 김경훈 45)은 지난 2001년 창업해 일반 김치를 생산 판매해오다 5개월여간의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지난 7월 홍

화씨 분말과 느릅나무 삶은 물을넣은 김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토종 홍화씨는 갈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어 골다공증과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고 느릅나무는 종기나 종창, 각종 궤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초 서울에서 열린 김치엑스포에 '왕빠 김치'로 출품해 강남지역 주부

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가격은 일반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홍화씨는 경북 봉화 등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배추는 경북 영양과 전남 해남지역에서 계약재배한 것을 쓰면서 고추와 마늘, 젓갈 등 양념류는 국산 가운데서도 최고 급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각종 한약재와 빙얌 성분을 첨가한 '당노 김치'도 개발해 특허를 함께 출원해놓은 상태다.